

종합 5월 2차 정부 조직 개편 이뤄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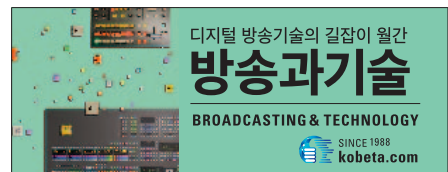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면**

종합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진위 파악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면**

오피니언 [칼럼] 자율주행차와 방송의 역할

지상파방송은 재난 경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매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고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절대적 비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7면**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63호
2018년 4월 11일(수)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

‘KOBAS 2018’ 5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 주최하는 제28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KOBAS 2018)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S, MBC, SBS, EBS, O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한국음향학회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KOBAS 2018은 미국의 NAB(Natio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유럽의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일본의 InterBEE(International Broadcasting Equipment Exhibition)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제방송장비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엑스 전시장 A, C, D홀 총 27,997sqm 규모로 진행되며 △KOBAS World Media Forum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 △HiFi Audio Show △방송·음향·조명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Media, Connected Everywher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KOBAS 2018은 초고화질(UHD) 뿐만 아니라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이 대거 출동해 각각의 기술들이 방송 시장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열리는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도 KOBAS 2018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UHD △라디오 △조명 △아카이브 △후반작업 △스마트 미디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클라우드 △블록체인 △IP △AI △5G 등 다양한 주제로 나뉘며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방송기술 전반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상화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도 준비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가 예상된다.

매년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Pre-Engineer - 나는 이렇게 입사했다’도 시즌 4로 돌아왔다. 올해도 KBS, MBC, SBS, EBS, CBS 등 방송사 2~5년차 방송기술인들이 △어떻게 입사했는지 △입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했던 방송기술의 업무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업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직자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이외에도 ‘KOBAS HiFi Audio Show’가 새롭게 볼 수 있다.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될 HiFi Audio Show는 국내 최첨단 오디오 산업뿐 아니라 세계 최고급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와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하이엔드 오디오, 하이엔드 모바일 기기 및 헤드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며 “KOBAS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전시회 무료 관람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문재인 대통령, 양승동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양승동 사장 “취재와 제작의 자율성 보장하겠다”



청와대는 4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동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양 사장은 1989년 KBS에 입사해 〈역사스페셜〉, 〈명견만리〉, 〈세계는 지금〉, 〈추적 60분〉 등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해 왔다.

2009년에는 한국PD대상 공로상을, 2017년에는 통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다.

양 사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 재가를 받은 후 본부장 등 주요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앞서 양 사장은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사장으로 선임되면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KBS 정상화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방송 공정성 위반과 제작 자율성 탄압 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해 KBS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6일 자 인사에도 이 같은 의지가 담겨 있다.

KBS는 4월 6일자로 △방송본부장 황용

호 △미래사업본부장 임병걸 △보도본부장 김의철 △제작본부장 김택재 △제작기술본부장 김용덕 △시청자본부장 박재홍 등 본부장 6인의 인사를 단행했다. KBS 탐사보도팀을 출범시키고 초대 팀장을 역임한 김의철 보도본부장, 이명박 정권 시절 제작 자율성 투쟁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택재 제작본부장 등이 눈에 띈다.

KBS는 “무너진 신뢰도와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조직 내 혁신과 자율성, 창의성을 불어넣는데 방점을 뒀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 사장은 사장 공모 당시 국장 책임제 등 ‘아래로부터의 자율’을 약속했다”며 “이에 맞춰 이번 임원 인사들은 앞으로 자율권을 보장받고 책임 경영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시 한번 취

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양 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장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해 취재·제작 자율성을 시스템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뒤 구성원들을 향해 “여러분 스스로도 높은 기준을 가져달라. 보도와 제작에 임할 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과오에 대한 평가와 문책은 회사가 시스템에 따라 하겠다”며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를 오직 새로운 KBS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양 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자진 사퇴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 강행을 인정할 수 없고 거부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과시켜 정권 혼위병인 사장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

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 외에도 부하 직원의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무마 의혹이 있다”며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누구보다도 양 사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과 공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KBS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영방송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진실을 소신 있게 파헤치며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한국당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에 대해 반성하는 차원에서 양 사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KBS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5월호 방송기술저널은 ‘KOBAS DAILY NEWS’ 발행으로 대체됩니다. 방송기술저널 264호는 6월 13일에 발행됩니다.



방송기술인상 선정

2018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춘수(KBS)

정보라(EBS)

황승기(tbs)

하태운(SBS)

박성민(KBS)

김동희(CBS)

안영재(TBN)

김정현(MBC)

박치규(OBS)

홍윤기(JTV)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NAB 2018, 4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

지상파·ETRI 등 UHD 관련 기술 전시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Show 2018이 4월 9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AB 2018에 참가해 우리나라가 최초 도입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기술과 국내 기업들을 세계무대에서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개막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미국 방송사업자협회(NAB), 북미표준화단체(ATSC),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 4개 기관 공동 주관으로 4월 7일 ‘글로벌 UHD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도입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UHD 콘

텐츠 제작 경험 등을 발표해 세계 각국의 방송 관계자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글로벌 UHD 방송 기술의 현황 및 도전 과제 등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3년 연속으로 NAB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앞선 UHD 방송기술과 국산 장비 등을 전 세계 방송 관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KOREA UHD On-Air’ 테마관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관은 ‘혁신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Beyond Innovation, Better Life)’라는 주제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SK텔레콤,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사, 12개 장비 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했다.

특히 ETRI는 ATSC 3.0 기반 단일주파수망(SFN) 기술과 ATSC 3.0 기반 공동시청 안테나 시스템 기술, 다중화(LDM) 기술과 스케일러블 영상 압축(SHVC) 기술을 결합한 멀티채널 HD 기술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ETRI 관계자는 “해당 기술들은 현재 미국 진출을 위해 노력 중으로 실시간 사용이 가능한 장비”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 UHD 방송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내 방송기술로 구현한 모바일-HD 체험 차량 도로주행 서비스를 LG전자 주관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 UHD 방송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로 널리 홍보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과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송기술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UHD 방송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국산 장비의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 우리나라의 UHD 방송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AB 기간 동안 RAPA와 전미방송협회(NAB), 미국재난방송협회(AWARN) 등은 국내 ATSC 3.0 방송 장비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조성하고, UHD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한다.

이진범 jnb1001@nate.com

5월 2차 정부 조직 개편 이뤄질까?…개편안 두고 학계 설왕설래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 개최



문제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방송 분야 2차 정부 조직 개편이 5월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다양한 개편안을 내놓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를 4월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

분산 △산업 논리에 따른 방송통신 공공성 약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정보미디어위원회와 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보미디어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

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형일 극동대 교수는 탄핵 정국 이후 약 6개월간 열린 여러 관련 토론회와 논의를 언급하면서 현행 조직 구조의 문제점은 △정책 및 규제 업무의 이원화 △불

무를 통합하는 독립적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통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김 교수는 “‘미디어’라는 단어가 적합하냐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방통위라는 지금의 명칭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방송통신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방송과 통신을 구분 짓는 관행을 지속해 경계 없이 모든 분야가 융합하는 현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문을 조직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조직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를 예로 들며 “FCC는 싱크탱크로 전문적

지식이 뒷받침돼 있으나 방통위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머리가 없는 셈이다. 전문 인력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합의제 기구라는 안에 다소 의견이 나뉘었다. 김성철 교수는 “합의제 위원회가 실패했다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래도 성과를 냈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연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합의제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산업을 강조하는 독립제 원칙은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기 쉽다”며 합의제 기구를 전제로 두고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규제의 일관성·통일성을 강조하며 인터넷·모바일 광고는 과기정통부의 방송 광고는 방통위의 소관인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 광고 내용은 동일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지만 담당 기관은 다른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입장을 고려해 산업이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속해서 지적되는 문제인 지역성도 언급됐다. 김연식 경북대 교수는 “이 발제문을 보면 여러 정책으로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혼란할 것도 없다”고 꼬집으면서 지역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이며, 지역의 이슈와 의제를 지역민이 알고 한기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소수 엘리트가 모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의 구성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이 왜 그런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에 쫓기며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심하고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개편의 목적을 모두 이해하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정책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놓고 동상이몽

한국당·바른미래당 “방송법 처리 없인 4월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정권 바뀐 이후 국회 보이콧만 벌써 7번째”

정의당 “방송법 막았던 한국당, 야당 되자 입장 바뀌” “전형적인 내로남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촉구하며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보이콧만 벌써 몇 번째냐”며 “계속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두 야당에 향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여 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 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계속 반대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입장을 바꿔 방송법 개정 통가를 주장하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방송법까지 철회하는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되서는 안면물수하고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며 “방송법 처리 지연 생떼를 중단하

고 4월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발의 당시 야당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굳이 소위원회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당리당락을 위해 대중 대중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국민을 보고 만든 법,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한 법을 권력을 잡고 나서 부정하는 것을 셸프 적폐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여당 시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송법 논의를 틀어막았던 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전환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국당의 관심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보이콧한 상임위만 정권이 바뀐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7차례”라며 “상임위별로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들이 산적한데 두 야당은 방송법 우선 처

리를 조건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 논쟁에 관해서는 과방위에서 논의를 지속하면 되는 일로, 이것이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며 “하루속히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미세먼지, 일자리 지원, 성폭력 범죄 근절 모두 보수 야당에서도 민생을 외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 개정안이 소폭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해답은 제시하고 있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촛불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흐름을 있었기에 공영방송을 재구성하려는 법 개정 작업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며 “당시 최소한의 원칙밖에 답을 수 없었던 시점들의 한계를 고려해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충분히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사 1/3 이상을 중립지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나와

“중립지대 이사진이 과연 중립적일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을 가칭 ‘중립지대’ 이사로 할당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당별 추천이 아닌 정당 간 합의적 추천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방통위가 요청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시민사회 분야 18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선정·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를 3월 29일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발전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과 야

당에서 이사 추천권을 분할해 행사하고 있어 정당성이 논골적”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 중립지대 이사진 설치 △이사진 임명 시 상호견제의 원칙 도입 △이사진 임기 교차제 및 연임 제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중립지대’ 이사진은 총 정원의 1/3 이상으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추천과 임명은 상호 견제 원칙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중립지대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한다. 이때 국회는 학술·직능·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후보 추천을 받아 추천한다. 반대로 국회가 추천·임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중립지대 이사를 추천한다. 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정원은 현행 11명과 9명에서 동일하게 13명으로 증원한다.

사장 후보자 결정 방식으로는 △재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 △특별다수제 도입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과반수 의결 가능 △현행과 같은 재직 이사 과반수 의결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발전위 전체위원장을 맡은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단계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체회의, 분과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항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방통위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립지대 이사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대식 KBS 대외협력실 박사는 “발전위의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연 중립지대 이사진이 중립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학술이나 직능,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지만 결국 추천

하는 주체는 방통위나 국회이기 때문에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술이나 직능,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추천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이사진 총인원을 13명으로 제안했는데 기준이 뭐지 궁금하다”며 “현행 방송법에 보면 KBS 역할 규정이 총 36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고, 이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19개 분야인데 그렇다면 1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고 덧붙였다.

강해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립지대’ 이사진 구성을 국민 참여 영역으로 남겨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중립지대 이사진이라는 아이디어는 참신한 것 같다”고 말한 뒤 “공영방송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중립지대 이사진 구성을 국민 투표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사진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연임 반대 자체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목표인지 모르겠다”며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1년 연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방통위,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진위 파악기로

MBC “이메일 열람은 ‘정당한 감사’” VS 한국당 “언론사 최악의 사내 탄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4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감사실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방문진 이사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 감사국이 파업에 불참한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를 받

았다는 MBC 기자 A 씨는 감사국 직원이 수년 전 자신의 이메일 기록과 내용을 보여주며 ‘2014년 3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자료를 메일로 받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 메일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 등의 추궁을 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김장겸 전 사장이 취임 직후 MBC 카메라 기자들의 정치 성향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문건이다.

이 같은 의혹에 MBC 감사국 측은 “지난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논란이 된 문건 등이 작성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메일을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법행위와 관련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방위·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의 이메일을 열람할 방법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집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인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로 언론사 최악의 사내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 소집은 불발됐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MBC 이메일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청했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MBC 감사국이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춰낸 것은 심각한 인격 침해”라며 “방통위가 경위를 조사하고 조치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으로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권한 내에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욱 부위원장도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에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MBC 불법 사찰 의혹 조사 놓고 여야 격돌

한국당 “파업 불참자가 순식간에 범법혐의자가 되는 세상”

민주당 “이메일 감사는 통상적 경영 행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월 3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MBC가 파업 불참자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파업에 참여하

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한 보도를 해온 과업 불참자들이 범법혐의자인지 역올한 선의의 피해자인지 국회에서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은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회의 소집 요구가 2차레나 무산됐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가 불법 사찰 의혹과 방송 탄압을 방조하지 말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MBC 인터넷 메일 감사로 통상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몇 년 전 ‘트로이카’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내 메일은 물론이고 개인 메일, 개인 메신저 등 PC 활동의 모든 것을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를 통상적 경영 행위라 말한 새누리당을 모체로 가지고 있는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MBC에서 인터넷 메일을 조사한 것은 해당자들이 블랙리스트 제작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

며 “얼마 전 대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인터넷 메일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제한적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 이 시대를 뭐라 일컫는 줄 아느냐”며 “평정한 공무원이 전 정권에서 일했다고 범법 행위자가 되는 세상,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성실한 보도를 해온 과업 불참자들이 범법혐의자가 되는 ‘공포시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트로이카 사건 때 대법원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은 것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내 탄압을 받은 과업 불참자들이 과연 범법혐의자인지 국회에서 따져보자”고 말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2018 전국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발족

“선거 보도 감시로 국민주권 시대 견인할 것”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올바른 정보를 요구할 국민의 권리를 지지하며 ‘2018 전국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가 발족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방송 직능단체 16개가 함께하는 2018 전국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3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선거 보도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미디어를 감시해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디어감시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 책을 통한 후보자 간의 공정 경쟁은 유권자의 참여와 더불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의 일환으로 우선 선거 기간 다양한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주의 나쁜 보도’를 선정한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심각할 때는 언론사로 직접 찾아가 ‘나쁜 보도상’을 시상하는 포포먼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 기자회견, 중간 평가 토론회, 일인 시위 등으로 신속히 대응해 보도 방향을 환기할 방침이며, 선거보도 제보센터를 운영해 미처 눈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국민의 제보를 통해 살핀다.

이번 선거는 전국지방선거이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보도 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김연경 민연련 사무처장은 “저희가 모든 미디어를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다. 특히 지역 언론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거보

도제보센터로 국민의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거보도 감시 준칙도 10여 년 만에 바뀌었다. 김 사무처장은 “10년 전에는 헌법 수준의 간단한 준칙이었다면 이번엔 시행령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준칙을 업데이트했다. 또, 최근 보도 양상을 바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의 순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미디어감시연대는 특히 3가지 문제 보도에 방점을 찍고 ‘이것만은 하지 말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선거 때마다 지적되고 문제로 인식됐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던 △오차 범위 내 순위 매기기 여론 조사 보도 △공약 실종



동정 보도 △보도자료 받아쓰기 보도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차 범위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의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마식 보도가 이뤄져 왔으며,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려주고 그 실효성을 분석하는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또, 상대 후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보도는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했다”며

“이것만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3가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는 이번 선거에 달려있으며 전국적 규모의 감시 연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철저하게 지역 유권자의 시선에 따라 보도를 감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OBS, IPTV 3사 등 유료방송과 재송신 협상 시작

“하반기 지상파 3사 CPS 협상에 영향 미칠 수 있어”

OBS가 인터넷TV(IPTV) 3사·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과 본격적인 재송신 협상을 시작했다.

OBS는 3월 6일 KT를 시작으로 7일 SK 텔레콤, 13일 스카이라이프, 20일 LG유플러스와 상견례를 겸한 첫 협상을 벌인 데 이어 3월 말부터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6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만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협상이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CPS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하겠다며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했고,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유료방송과 소송 중이었던 지상파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고, 결국 유료방송 위주의 반쪽자리 협의체로 진행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 협상 의무 위반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 체결 거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상파 또는 유료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OBS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OBS와 유료방송 간 CPS 협상은 올 하반기 본격화할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 간 CPS 협상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기술용어

데이터레이크 Data Lake

데이터레이크(Data Lake)는 데이터가 분석이나 마이닝에 필요할 때까지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스토리지 저장소다. 대용량 데이터를 억지로 통합해 단일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형식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찾기 위해 같은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나 데이터레이크는 데이터를 수집한 뒤 필요할 때마다 조합해 분석할 수 있어 형

식 변환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포레스터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기업 70%는 2018년에 빅데이터 재설계와 AI 기반 시스템을 구현할 전망이다. 33%는 데이터레이크가 기업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했다. 빅데이터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만큼 데이터 활용 도구로서 데이터레이크의 가치 역시 더 크게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숙희 sh45@kobeta.com

모바일·PC에 밀리고 CJ E&M·종편에 쫓기고…지상파 광고점유율 감소세 방통위, ‘2017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발표

2016년 광고 시장은 전체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는 모바일·PC, 채널에서는 CJ E&M과 종편 4사 계열의 비중 증가로 인해 지상파 3사 계열의 광고 매출 점유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3월 21일 발표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 경쟁 체제를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방송 시장을 대상으로 전체 방송 시장을 △방송 광고 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 프로그램 거래시장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정해 경쟁 상황을 분석했다.

전체 광고 시장 규모는 10조 4,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방송 매체는 전년 32.4%에서 31.9%로, 인쇄 매체는 전년 18.7%에서 17.7%로 비중이 감소했으며,

모바일 매체(16.8%→16.7%)와 PC 매체(12.5%→15.7%)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폭 상승해 비중 증가 추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만이 아니라 시장 규모에서도 방송 광고 시장은 2조 9,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협찬 매출액은 7,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나 방송 광고와 협찬 합산 매출액은 6.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상파 3사 계열의 광고 매출 점유율은 전년 61.3%에서 56.8%로 감소해 점유율 축소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J E&M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5년(9.9%) 반등한 데 이어 2016년(11.9%)에도 증가했으며, 종편 4사 계열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3%를 기록했다.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경우 방송사의 외주제작비는 연간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나, 한 해 동안 방송사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 755개 중 연간 5개 이하 납품 외주제작사가 91.0%(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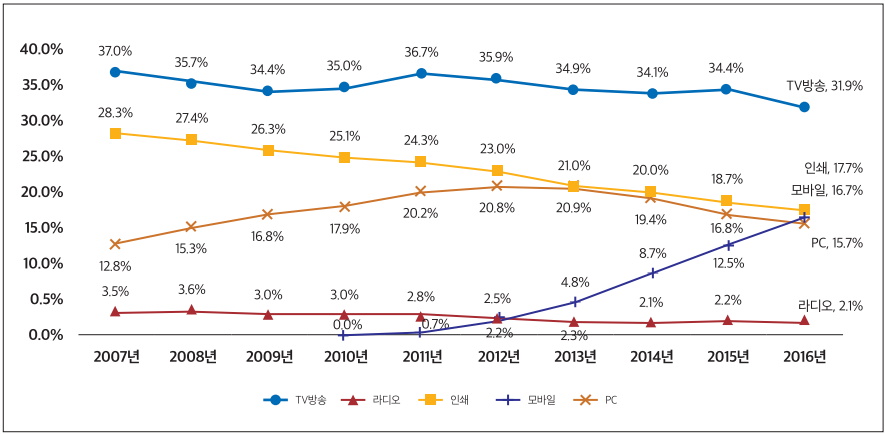
개),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3.7%(28개)에 불과해 소수의 외주제작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의 외주제작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위 3대 수요자는 여전히 지상파 3사였으며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의 협상력 우위가 여전히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공급자인 외주제작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는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당 경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료방송 시장은 아날로그 유료방송 시장,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과 별도로 8VSB 유료방송 시장을 최초로 확정했다. 8VSB는 2014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에 이용하는 전송 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으로, 8VSB 가입자는 디지털 전환을 산정 시 디지털 가입자에 포함한다.

시장 확정을 새롭게 한 이유는 2016년도에 336만 명 가입자로, 전년 대비 116.7% 증가하며 크게 성장한 점과 타 상품과 수요 대체성

주요 매체별 광고비 비중 추이(2007~2016)(단위: %)



©KISDI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보고서(제일기획, 『광고연감』각 연도 재구성)

이 적은 점, 상당 기간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2016년 유료방송 가입자는 2,992만 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이 중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는 2,3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IPTV 가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IPTV사업자의 방송 사업 부

문 영업 적자 규모 또한 1,267억 원으로 전년 3,155억 원 적자에서 대폭 개선됐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의 VOD 매출액은 2016년 기준 7,0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성장했으며 전체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1.4%에서 24.4%로 증가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불붙은 AI 경쟁…네이버에 카카오, 이동통신3사까지 ‘시리’ 개발자 김윤 “AI 선도하려면 인재 확보 필수”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이동통신3사까지 인공지능(AI)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융합 기술 스타트업 ‘드비알레’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웹툰 테크놀로지 Inc.’와의 전략적 협업 관계 구축, 유럽 내 최대 AI 기술 연구소인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 인수, 국내 AI 스타트업 ‘컴퍼니 AI’ 인수, 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지난해 AI에 대한 투자만 전년 대비 20배 넘게 한 네이버는 글로벌 플랫폼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여전히 AI 인재 영입을 위한 기술 공유에 앞장서고 있다. 네이버는 4월 12일 홍

콩과학기술대에 30~40명 규모로 ‘네이버-홍콩과기대 AI 연구소’를 세우며 아시아 지역 AI 인재를 영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홍콩 연구소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중국 경제 특구인 선전과 가까워 앞으로 선전 내 스타트업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3.0’을 앞세워 올해 안에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인재 영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AI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석박사 과정 재학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연구 지

원 프로그램은 ‘연구장학금(학비·연구비 지원)’, ‘해외 학회 참관 비용 지원’, ‘연구 인턴십’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지원자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지원이다. 황성현 카카오 인사 부문 총괄 부사장은 “카카오는 AI 기술 강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영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애플 음성인식 개발 팀장과 HomePod(홈팟)의 Siri(시리) 개발 총괄을 역임한 머신러닝 전문가를 AI리서치센터장

으로 영입해 AI 분야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윤 SK텔레콤 AI리서치센터장은 4월 4일 열린 ‘New ICT 포럼’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센터장은 “SK텔레콤이 AI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연말에는 센터 인력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규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등 R&D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입 공개 채용을 실시한 KT도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채용을 크게 늘렸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아카데미’ 교육생 27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AI 아카데미는 KT와 교육부가 지난 1월 체결한 AI 분야 한국형 나노디그리 업무협약의 결과물

로, 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네이버와 함께 AI 스마트홈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LG유플러스도 해외 인재 영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UCLA를 시작으로 텍사스대학교·텍사스A&M대학교·조지아理工学院·파워대학교 등 미국 내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석박사 대상으로 채용 면담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AI 경쟁은 스피커를 넘어 쇼핑, 금융 등의 분야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는 인재 영입에 힘을 쏟을 것과 동시에 네이버·LG유플러스의 경우처럼 AI 분야 확장을 위해 손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선하 baek@kobeta.com

카카오 3.0 시대 선언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할 것”

카카오가 ‘카카오 3.0’을 선언하고, 시너지와 글로벌 진출을 통해 새롭게 도약한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3월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조수용 대표는 “카카오 1.0은 카카오톡을 출시하며 모바일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에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했던 시기고, 카카오 2.0은 메신저를 뛰어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장한 시기”라며 “카카오 3.0은 시너지를 통해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에 도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계획은 블록체인 사업이다. 카카오는 연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기

여하고,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Ground X)’를 일본에 설립했으며, 전 퓨처플레이 최고기술경영자(CTO)인 한재선 박사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그라운드 X는 카카오톡만의 플랫폼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 대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 세계 IT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갈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다양한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카카오 서비스에 관련 기술을 접목함은 물론 신규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해커톤, 컨퍼런스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조 대표는 카카오 3.0의 핵심 실행 전략 중 하나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융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출시된 이후 국내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켜왔다. 문자메시지 대체를 시작으로 게임, 커머스, 결제, 송금,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연결과 관계를 형성했다.

카카오는 먼저 연내 ‘저렴’ 프로젝트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공유되는 사진, 동영상, 일정, 자료 등 개인의 디지털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스피커 ‘카카오미니’도 더 풍성해진다. 지난해 11월 정식 출시된 카카오미니는 멜론과 결합해 이용자들의 음악 듣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톡 호출, 음식 주문, 교통 안내 등 주요 서비스를 추가하며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순차적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전화 걸기), 번역, 홈 IoT 제어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카카오 I 개발플랫폼인 ‘카카오 I 오픈빌드



도 하반기에 정식 오픈한다. 카카오는 “AI 플랫폼 ‘카카오 I’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외부 파트너들이 카카오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해 이용자들이 생활의 모든 장소, 순간 속에서 카카오의 AI 기술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IT 산업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대의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만들어갈 서비스, 기술 혁신이 이용자들의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방심위 ‘대리 민원’ 직원 파면·고소

“정치심·편파심이라는 오명 벗기 위한 첫걸음 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

방심위는 3월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정부 민원 46건을 신청한 탐장급 직원 김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대상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12건, MBC·MBN 각 5건, 채널A 3

건, KBS 2건, SBS·YTN·현대홈쇼핑 각 1건이었다.

방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는 실전 배치 기념식 뉴스를 보도하면서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편집한 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넣었고, 2015년 방송된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제1편은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김 씨가 신청한 민원 중 19건에 대해 법정 제재, 14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 총 33건의 법정 제재 등을 결정했다. 현재 김 씨는 전 방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아닌데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점, 이러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징계(파면)를 내렸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또 해당 건에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3월 21일 강상현 현 방심위원장 명의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민 사무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 편파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방통위, 페이스북 ‘통화·문자 기록 수집’ 의혹 확인 나서

방통위·과기정통부 ‘콜로그’ 무단 수집 의혹 관련 실태 점검 착수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 이용자의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콜로그는 전화, 문자 등을 언제 누구와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역 기록이다. 실질적 통화 내용은 아니지만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문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있다. 메신저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려면 ‘주소록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2011년 발매한 4.0버전(아이스크림샌드위치)까지 사용자가 ‘주소록 접근 권한’을 허용하면 ‘통화 내역 접근’도 수락한 것으로 포괄 간주한 것이다. 애플의 iOS는 앱을 통한 콜로그 수집을 허용하지 않아 이번 논란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동의 과정은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국내 메신저 앱에서도 거치는 것으로, 한겨레는 지난 3월 28일 기사를 통해 카카오톡의 콜로그 무단 수집 의혹

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OS 개발사가 정의한 접근 권한을 분리할 수 없으나, 이를 수집하기 위한 로직을 짜지 않았으며 카카오는 이런 정보의 수집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구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어 권한은 가지고 있었으나 수집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논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이용자의 통화·문자 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 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 권한 구분 등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논란의 시작이 OS에 있는 만큼 주요 OS 공급자인 구글과 애플이 앱을 사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하도록 운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번 논란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개인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각종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화 내역 등은 통신사실 확인자



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사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UHD 국제표준에 기여한 박성익 박사 ‘ETRI 올해의 연구자상’

ETRI 기술대상엔 UHD 모바일방송 기술 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고 영예인 올해의 연구자상에 방송·미디어연구소 박성익 박사가 선정됐다.

ETRI는 4월 5일 원내 7동 대강당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갖고 올해의 연구자상을 비롯, 기술대상, 신입직원상 등 우수 성과에 대한 직원 포상을 실시했다.

올해의 연구자상을 받은 박성익 박사는 ‘지

상파방송 계층분할다중화(LDM)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미국 방송기술 표준화 단체인 ATSC 최종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등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TRI는 “해당 기술에 대한 박 박사의 SCI 논문이 10건, 국제표준특허 제1발명자도 다 수고,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최우수 논문상을 네 차례나 받았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의 ‘ETRI 기술대상’에는 방송·미디어연구소의 ‘UHD 모바일방송 기술’이 선정됐다. UHD 모바일방송 기술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미국 CBC 방송사를 통해 올림픽 경기를 생중계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하나의 방송 채널로 4K-UHD

방송과 이동 HD 방송을 동시에 전송 가능한 LDM 기술의 핵심원천 기술과 고압축 비디오 부호화 기술이다. 연구진은 본 기술 개발로 국제표준 지식재산권(IPR)을 대거 확보했다. 해당 기술로 지난해 거둔 특허 라이선싱 기술료만도 50억 원을 넘었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 성과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한 공로로 SW·콘텐츠 연구소 최정단 자율주행시스템연구그룹장과 초연결통신연구소 이인환 박사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ETRI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가장 우

수한 연구 실적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가장 우수한 연구실적에는 SW·콘텐츠연구소 언어지능연구그룹 및 음성지능연구그룹이 선정됐고 박형주 선임, 박명옥 책임연구원과 방송미디어연구소의 박성익 책임, 김태균 책임 연구원이 뽑혔다.

이상훈 ETRI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바라볼 때 우리 연구원의 어깨가 무겁다”며 “연구원은 이제 국민의 곁에서 당당한 사회적 어려움과 안전, 편의를 위해 연구하며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언론인가 2차 가해자인가…미투 운동 보도 방식에 비판 잇따라

"여론 재판의 판단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자돼야"

검찰 내 성폭력 폭로를 시발점으로, 사회 각 계각층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혁명으로 불리는 이 거센 흐름이 계속되며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이를 다루고 있지만, 그에 따른 2차 가해와 언론의 보도 방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의 미투 보도, 그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를 3월 2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미투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는 “미투 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언론의 역할과 개선 여지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폭력 생존 여성들이 언론의 생리와 파급력을

잘 이해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언론을 능동적으로 사용해 그 힘을 극대화하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이번 미투 운동은 저하도 적응하기 힘든 사태”라고 말했다.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언론 보도의 기본 지침으로, 이를 어기는 언론에 대한 지적은 많았으나 언론 노출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 정슬아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이 언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선택이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고 쉽게 무고로 몰아세우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이들을 2차 가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카메라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희은 조선대 교수는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과도하게 자세히 서술하며 가끔 포르노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몇 차례 했는지, 얼마나 강하게 그랬는지가 미투 운동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인 것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자질한 사항을 다루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두 개인의 싸움으로 환원함으로써 성범죄가 일어난 근본적·구조적 문제는 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김언경 사무처장은 “언론을 위한 성범죄 보도가 이드라인은 이미 충분히 많다. 심의 규정도 나를 잘 돼 있다. 문제는 이것이 언론 사회에 인



식과 공유가 잘 돼 있지 않고 무엇이 2차 가해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인권 감수성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워나가는 것으로 많은가 이드라인과 논의, 인권을 언론인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규 교수는 “젠더 문제에 보다 전문적 조직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 언론이 피해자에게 심문하는 대신 피해자가 자신의 말로 긴 호흡으로 서사화하는 방식, 또

언론이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사과하는 방식 등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손석희 앵커의 자리에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다”고 말했다. “단순히 남성 앵커를 여성 앵커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손석희 앵커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여성 저널리스트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상상”이라며 보다 성숙한 언론의 보도를 당부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단신

SBS, 아프리카TV와 e스포츠 합작법인 설립



SBS와 아프리카TV가 e스포츠 공동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e스포츠 콘텐츠 제작, 방송,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하며 국내외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향후 양사의 e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전담한다. SBS의 e스포츠 지상파 신규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e스포츠 전문 채널인 신규 케이블 채널을 설립하며, 케이블 채널 방송물의 제작 및 송출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오프라인 대회 운영, 이벤트 및 매니지먼트, 라이선스 사업 등 e스포츠와 관련한 각종 부가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리카TV가 운영하고 있는 APL, ASL 등의 e스포츠 리그 및 각종 e스포츠 사업도 합작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아프리카TV는 합작법인의 e스포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과 함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한다.

SBS는 지상파 및 케이블TV 부문의 서비스와 함께 합작법인의 e스포츠 콘텐츠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맡을 예정이다. mjkang@kobeta.com

‘방문진 갈등설’ 이완기 이사장 사임

이완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월 1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 이사장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의 온전한 독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사회를 끝으로 방문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방문진의 독립과 MBC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저의 부덕과 능력의 부족함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고영주 전 이사장의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이사장보다 연장자인 지영선 이사를 임명하면서 갈등설이 불거졌다. 방문진 이사장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중 선출되는데, 관행상 연장자가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차기 이사장으로 지영선 이사가 거론됐으나 이사장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영선 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월 사퇴했다.

이 이사장의 입장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 이사장은 “방문진의 이사 선임 방식은 아직도 법과 규정이 아닌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방문진의 고질적 문제인 정파성을 증폭시키며, 궁극적으로

방문진과 MBC의 정치적 독립에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MBC 계열사와 자회사 임원 선임이 마무리되는대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사장이 자리 욕심 때문에 이사장직을 놓지 않고 있다’, ‘MBC 계열사의 임원 선임에 이사장이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고 말한 뒤 “방문진 이사회 일각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탈 행위는 이사 상호 간의 신뢰를 깨뜨린, 청산해야 할 적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문진은 3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김상균 전 광주MBC 사장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KT스카이라이프 김영국 신임 대표 조건부 선임

KT스카이라이프가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의 대표이사 선임 건을 조건부 결의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월 27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 전 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김 신임 대표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강국현 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 신임 대표는 KBS 교양국 부주관, KBS 강릉방송국 국장, APEC 방송단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KBS 콘텐츠정책국장, 교양국장을 거쳐, 2012년 KBS N 대표이사, 2014년 KBS 글로벌센터장, 방송본부장 등을

맡아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3월 9일 김 신임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김 신임 대표가) 방송 시장과 광고, 커머스 플랫폼 등에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신임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선임이 확정된다. 심사 결과는 4월 27일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3월 18일 성명을 통해 “KBS는 김영국의 지휘 아래 KT스카이라이프와 2015년 56억, 2016년 63억, 2017년 61억 원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K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 김영국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30일 전 취업 제한 조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데 김 신임 대표의 이전 경력을 비취 보면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주당 350원의 이익배당을 결의하고 이사로도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조건부), 강국현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기타 비상무이사에는 이필재 KT 마케팅 부문장, 김영진 KT 그룹경영단장이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권행민 전 사외이사가 재선임, 조성욱 변호사(조건부)와 KBS 이강택 씨가 신규 선임됐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KOBWorld Media Forum 2018’ 5월 15일 개최

Broadcast and Media, Connected Everywhere!



James Jackson
디지털UK



이종민
SK텔레콤 미디어기술원장

제4회 KOB 월드미디어포럼(World Media Forum, WMF)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방송과 미디어, 모든 것이 연결되다!(Broadcast and Media, Connected Everywhere)’를 주제로 열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교육원이 주최·주관하는 WMF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 포럼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첫날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Connected Everywhere’를 키워드로 초고화질(UHD) 이후 광대역 무선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디어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영우 연합회 정책실장은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기존 선형적인(Linear) 방송 미디어 구조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해 편성되고 구성된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미디어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5G 시대가 오면 모바일 단말기에서

UHD 콘텐츠와 함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접목된 초실감형 서비스도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이 만들고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를 거듭할지 전 세계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영국의 Digital UK에서 기술 책임을 맡고 있는 James Jackson이 “The Evolution of Connected Media”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Digital UK는 영국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단체로 지난 2015년에는 Freeview와 공동으로 Freeview Play를 개발했다. James Jackson은 Freeview Play 기술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현재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따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는 아마존이 두 번째 강사로 나선다. 아마존은 “The Change of Cloud Media(가제)”를 주제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뒤흔들지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출발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는 아마존의 상승세는 어마어마하다. 최근에는 알파벳(구글 모회사)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2위에 등극해 1위인 애플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마지막 강연자로는 이종민 SK텔레콤 미디어기술원장이 나선다. 지난해 39살의 나이로 최연소 임원에 오른 이종민 원장은 카이스트(KAIST) 석박사 출신으로 지난 2010년 SK텔레콤에 합류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이 선도하는 모바일 실시간 방송기술인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야에서 1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선보인 ‘360 라이브 VR’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WMF 2018에서 “The Future of Media Platform and Technology(가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8년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지상파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2018년도 교육 계획

순서	구분	교육과정명	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1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	차세대 뉴미디어 트렌드	20명	06.19~06.21	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2	UHD 전문가 양성과정	UHD 송신시스템	20명	07.17~07.19	
3		UHD 네트워크 및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15명	09.17~09.19	
4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	15명	11.06~11.08	
5	방송 시스템 전문가 양성과정	차세대 라디오 및 모바일 방송	15명	04.24~04.26	
6		방송기술 기초(A to Z)	20명	06.26~06.28	
7		대형 이벤트 중계방송 실무	15명	10.16~10.18	
8	Audio& Lighting 전문가 양성과정	방송조명 제작 워크플로우 현장실습	15명	07.24~07.26	SBS 본사, 프리즘타워 및 일산드림센터
9		오디오 MIXING & MASTERING 현장실습	13명	08.21~08.23	미정
10	지역 방송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충청권 지역 방송기술 교육	35명	04.20	KBS대전충국 8층 대회의실
11		경상권 지역 방송기술 교육	35명	08.03	미정
12	글로벌 방송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글로벌 HDR 컬러리스트 전문가 양성과정	6명	10.07~10.13	미국, Los Angeles
13		글로벌 방송제작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6명	09.09~09.15	미국, New York
-	세미나 및 컨퍼런스	KOBA World Media Forum	-	05.15	Coex 컨퍼런스룸 401호
-		KOC 2018	-	11월중	미정
총 계(13회)			230명		

※ 교육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edu.kobeta.com)에서 확인 바랍니다.

교육 접수 안내

- 교육비 : 무료 (중식 지원, 그 외 기타 숙박비 및 교통비는 각자 자체 부담)
- 교육 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 접수 일정 : 매월 접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 접수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문의처

- TEL : 02-3219-5640~1 / FAX : 02-2647-6813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 홈페이지 : edu.kobeta.com
- e-mail : bea@kobeta.com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방송의 역할

칼럼



이상운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연구센터 교수

지상파방송은 독보적 방송사업자로서 화려했던 과거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으며, 더욱 거세지는 경쟁 매체의 출현 속에서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상파방송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네트워크 강점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또 홍보 어필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기사가 증대하고 있다. 일부 시험용 자율주행차량의 사고 소식도 있기는 하나 언젠가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지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면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5G’다. 자율주행차와 5G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의 판단과 조작 없이 도로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반응을 제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의 시설물, 차량, 보행자 등을 인식하기 위해 GPS 신호를 수신해야 하며,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상 센서,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앞서 언급한 센서와 연동해 조작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앞서있고 시험 운행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연이은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월 18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에서는 우버의 볼보 모델

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센서가 보행자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이 이유로, 보다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닷새 후인 3월 23일(현지 시각)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X 자율주행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에서 주행하던 일반 자동차가 연이어 추돌 사고를 당했다. 추돌 뒤 불길에 치솟고 폭발이 일어나 배터리가 실려 있던 차량 앞부분이 폭발해 완파했으며 운전자는 사망했다.

이런 사고 사례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개막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대 이전 단계로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가 먼저 보급이 되고 있다. ADAS의 장점은 자동차 주변의 객체와 차량 환경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나 ADAS 지원 차량의 핵심은 자동차 주변의 다양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나, 여기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며, ‘Connected Vehicle’이란 용어도 종종 쓰이고 있다. 통신 진영에서는 새롭게 개발하는 5G를 앞세워 자율주행차나 ADAS를 지원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5G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에는 이동통신 모듈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등의 안전 주행을 위해 요구되는 센싱 및 조작에 이동통신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이동통신 진영의 바람은 차량 주행에 요구되는 기능 외에 자율주행으로 인해 운전대에서 해방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도 이동통신망을 주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Apple과 같은 콘텐츠를 구비한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자동차에 장착한 기존의 라디오 수신기 등을 밀어내고 고속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도 가속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은 독보적 방송사업자로서 화려했던 과거의 위상이 약해지고 있으며, 더욱 거세지는 경쟁 매체의 출현 속에서 점점 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상파방송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없는 차별화된 네트워크 강점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또 홍보 어필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진영이 자신들의 기술을 실제로 과장되게 부풀려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상파방송은 지진, 태풍 등으로 이동통신이 쉽게 무용화하는 경우에도 굳건하게 재난 경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된 매체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고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절대적 비교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또 이뿐인가! 라디오, TV 채널을 통해 제공 가능한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향후 제공하는 UHD 모바일 TV 서비스는 자율주행차에서 각광받는 매체로 등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자동차 이용자들, 즉 국민들은 현재도 부담이 적지 않은 이동통신 요금에 자동차로 인해 추가적 통신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 방송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본 칼럼을 마친다.

사설

‘KOBAS 2018’ 현실을 뛰어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회로 도약하길

NAB Show, Where Content Comes To Life!!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NAB Show가 지난 4월 9일(현지 시각)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인 5월 15일 국내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KOBAS 2018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아 총 27,997㎡ 규모의 홀에 UHD, 실감 방송, 클라우드 등 미디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초창기 약 3,900㎡ 규모에서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상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누구보다도 국내 시장의 근원적 열악함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송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방송기술인들의 피땀 어린 노고와, 매년 참여하여 전시회의 발전과 흥행을 이끈 지상파 방송사들을 포함한 여러 방송사들의 꾸준함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의 KOBAS는 ‘국제’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으며, 컨퍼런스, 월드미디어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도 역시 질 높은 전시와 컨퍼런스가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기대를 담아 KOBAS의 미래에 몇가지 願을 보낸다.

우선, 전시회의 주연 교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의 KOBAS는 Sony 같은 일부 대형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방송사들이 주도한 전시회였다. 물론, 이들의 참여가 전시회의 흥행을 이끄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임시적 역할에 의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 ‘전시회’는 전시자인 판매자와 참관자인 구매자의 만남의 장이며, 전시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판매자인 업체가 되어야 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업체의 기술력 강화와 검증된 국산 기술의 과감한 도입 등 방송사들의 결단들이 더해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이어진다면, 전시회의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고 방송사들은 수십 년 동안의 ‘주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명품 조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주요 방송사의 불참에도 전시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기대의 실현이 멀지 않은 듯하다.

두 번째로, 산업 간 경계 붕괴 상황 속에서의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금년 NAB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도 ‘산업이 융합하면 혁신이 나타난다’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방송기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며, 거의 모든 기술이 콘텐츠의 생성부터 배포까지 관여하게 되는 상황에 이미 도달해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방송 기술’이라는 특수한 영역 안에서 안주해왔던 방송사와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극단적 상상이지만 CES와 NAB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그래서 CES가 NAB를 삼켜버린다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 하지만, 현재의 모든 미디어 관련 기술의 중심에 ‘콘텐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 점을 잘 활용한다면 기술과 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질 높고 풍성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명품 조연’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로, 전시회 개최 시기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KOBAS는 NAB 직후 가장 먼저 아시아에서 열리는 전시회다. 그래서, 전시회의 양상도 NAB에서 소위 ‘엑시스’만 뽑아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아시아권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 미국, 유럽 등 해외 장비 제조업체들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이를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지원 부분이 보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방송사의 참여와 방송기술인들의 역할이다. 물론 방송사의 참여가 전시회의 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방송사는 콘텐츠 생산자로서 전시회 참여를 통해 콘텐츠에 녹아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업체에게는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 또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게 하고, 일반 참관자에게는 콘텐츠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결과적으로 전시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NAB처럼 이를 주도해나갈 공식적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방송기술인들의 몫이다. 앞으로 주연이 아닌 ‘감독’로서의 방송기술인들의 역할도 기대한다.

올해 KOBAS의 주제가 바로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라고 한다. 아무쪼록 금번 전시회를 통해 더 이상 수동적 시청자가 아닌 능동적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디바이스 장벽이 없는 절대적 편리성과 사용자 중심의 막강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훌륭한 기술들이 소개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KOBAS도 명실상부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디어 기술 전시회로 발전하길 소망해본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AS(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1년간 8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박재현

편집위원 | 허술기, 김지옥, 양창주, 이용학, 유의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KOBASHOW 2018

www.kobashow.com

미디어, 모든것을 연결하다.

Media, Connected Everywhere



28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8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8.05.15-18
COEX, SEOUL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OTRA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음향학회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산업통상자원부



Approved Event